

조선특유의 자랑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모른다

은 사회주의제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는 《발전》과 《문명》을 떠드는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적은 투자를 들여 보다 많은 리움을 얻는 것은 리움주와 자본축적의 어긋수 없는 법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인민의 리익을 우선시 하고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식료가 공업부문 협의회를 조직 하셔서 때의 일이다.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어느 한 공장 건설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해당 부문 일꾼들의 의향을 아신 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타산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때나 수반일부터 먼저 튀기는 말야 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 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었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람은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계산방법 이라고 하시었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불같은 진정을 터놓으시던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꼭대급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채워주도록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

지금처럼 어려운 날에 슬하의 자식들을 위하여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두어 어깨에 걸머지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회의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급반은 기초식품, 비누와 치약, 치솔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

언제인가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은 서유림의 한 국회 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 생산한 소비품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공급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포를 쏘아 참새를 잡는 격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이 부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반대로 7년 전 300여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킨 《세월》호사건 직후 남조선의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정작 이 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세월》호참사 이후 국내 소비위축을 걱정하는 고상한 설교였다.》

리해하기 힘든 현실

국가도 당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령도자의 인민사랑은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와 그들에게 덕이 얼마만큼 차레지는가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낳았으며 이 땅으로 전설같은 현실들을 꽃피우고있다.

공화국에만 고유한 인민적 시책들에 의해 치료받은 격정, 배울 격정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민들,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에게 해마다 가슴가득 안겨지는 사랑의 선물들, 또 매달 국가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공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에게 진정어린 위로와 보상을 못해줄망정 경제위기와 침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면라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조보적인 노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고있으며 하루평균 240여명에 달하는 산업재해피해자들이 생겨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치라산이 없는 공화국의 현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본사기자 김준경

독자문답

제카나다동포 송일홍선생이 제기한 질문

사회주의의학을 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가

예방과 치료는 다같이 의학의 기본내용을 이루지만 이 두 측면이 사람들의 건강보호중에서 가지는 의의는 같지 않다.

보다 선차적인 문제는 예방을 잘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치료가 일단 생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방은 질병의 근원 자체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되기때문이다.

예방과 치료의 이러한 호상관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며 이 두 측면 가운데서 어느 것을 기본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본성과 의학의 성격, 사명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무하며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의학이 사람들을 질병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중진시키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의학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예방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예방대책을 세워가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정책의 우월성은 병치료의 권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서뿐 아니라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시책에서 더욱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성주석께서는 1955(1966)년 10월 2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

의학이다》에서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시었다.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의학적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는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전민을 대상으로 예방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건강

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러나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의학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의학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숭고한 사명에서 벗어나 영입되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고있으므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치료에 치중하고있다.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차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그 무슨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 수지타산에 앞서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새로운 계산방법

위대한 김정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쓰시었다.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를 먼저 가능해보며 사랑의 정치, 은덕의 정치를 펼치는 고마



인민적시책속에 행복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인민들



영회 외 현실

따뜻한 우리 집 이야기

공화국에서 다른 영화들도 그려하지만 특히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이 영화가 창작된지 몇해가 지났지만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영화는 나 어린 처녀의 몸으로 여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훌륭하게 키워내세움으로써 만사람을 감동시킨 강선망의 《처녀어머니》를 형상화하고있다.

영화의 주인공 정아의 가슴속에는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있다. 영화에는 정아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당책임일군이 하는 이런 대사가 있다.

《이자 방금 학교문을 나선 그에게 깃들기 시작한 그 소중한 꿈이란 무엇이었소. 온 나라 애육원, 육아원을 찾았으시며 부모 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들이 질세라 늘 마음을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깨에 실려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겠소.》

이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 일신의 편안이나 향락이 아니라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 정아.

영화는 집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람홍색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리

는 이 땅은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크나큰 집이라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따뜻한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의 현실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하나의 전제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말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어디서나 활짝 꽃피고있다.

이름과 직업,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저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혈육, 친자식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때뵈어 돌보아주며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진정을 바쳐가는 청춘남녀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도우며 화

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정이 하도 따뜻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영화의 내용이 그처럼 정에 넘치고 따뜻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고상한 정신세계,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화국의 참모습은 《너를 위하여!》만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과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어 서로 죽일대기를 하며 인민의 감성이 발달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집 이야기》,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이 이야기는 서로 도우며 이 나라가 화북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만 꽃피울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흥복식



끔찍한 생존경쟁무대

요즘 남조선에서 상영되고있는 어느 한 TV극에 대해 평한 글들을 보면 인간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으로 몰고 그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TV극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빛에 허덕이며 지옥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명의 우승자에게 차레지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잔혹한 경기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예술작품은 현실의 반영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사회경제적지위상승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있으며 가계부채는 최악에 이르렀고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마포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0여명의 자살자가운데서 대다수는 빛에 쫓겨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게다가 약성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빚을 내가면서도 막바지 가정회페투자에 빠져들고있다.

이렇듯 집값폭등과 경제적락극화에 의한 사회적절망감 확대, 벼랑끝에 내몰린 청년들과 소외계층 등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우울한 자화상을 TV극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1등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수백명의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경기를 보며 쾌락을 느끼는 경기조직자인 부자의 형상을 통하여 권력자의 횡포와 전횡이 란무하는 사회, 돈 없는 사람은 부자처럼 가지고노는 장기처럼 취급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고 한다.

TV극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불쌍한 사람

들이 거액의 상금을 위해 인간성을 잃고 남을 해치려고 피를 묻고 날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의 권력야욕달성과 치부를 위해 맹수마냥 서로 으르렁거리고있다.

《대선》을 몇달 앞둔 지금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고있는 정치권의 싸움은 사람들의 비난과 규판을 자아내는 TV극의 주인공들도 무색케 할 정도이다.

TV극을 본 남조선의 각계층이 취업, 부동산, 주식 등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자들이 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런 사회에서 승자로 된 인간은 패자들의 시체우에 서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선》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현실을 저주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구주하고 멋진 우리 말이 넘치게

《75년간 우리 학교를 지켜오신 선대들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속에서 태어나 일어난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알게 하며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 가르쳐주신 선대들...》

5월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전체교직원, 학생들의 통일운동결의대회에서 우리 학교교주임선생의 토론이 울려 퍼졌다.

교주임선생의 《우리 말은 조선사람의 생명선이고 우리의 힘있는 무기이며 재산이다. 전체교직원, 학생들이 합심하여 기여이 모범학교를 쟁취하자!》라는 열렬한 호소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모두 눈을 반짝이였다.

창립 75돌을 맞는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말을 잘 배우고 늘 쓰는 2중모범학교》의 영예를 지니자고 1학기부터 한단계 높은 우리말운동을 벌려왔다.

우리말 운동추진위원회 교

원들은 우리말 늘 쓰기를 단연한 일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과제를 제시하고 협의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1학기에 《말하기》, 2학기에 《쓰기》, 3학기에 《읽기》능력을 높이는것을 목표로 우리말 운동을 벌릴것을 계획하였다.

1학기에는 학교에서는 물론 통학길에서나 소조시간에도 우리 말을 쓰며 또 배운 우리 말을 적극 익혀줌으로써 도장을 받는 《우리말 모범중운동》, 조국의 어린이들이 하는 서로 말을 연습하여 발표하는 《서로말을 연》 등이 진행되었다. 교원들의 우리말 학습과 시험도 진행되었다.

2학기는 고운글 쓰기, 띄어쓰기, 철자법, 받아쓰기 학습을 교종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검정시험형식으로 표창을 하고 학기말에는 《제5학년 우리말 대사전》을 전체 학생의 힘으로 작성할 예정

이다. 우리 학교에 들어하면 들려오는 구수한 우리 말과 여러가지 멋진 우리말 벽보들은 날마다 높아가는 우리 학교 학생, 교원들의 우리말 쓰기에 대한 의식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포조선제5중급학교 교원 송필임 《조선신문》에서 전례



본사기자 림광훈